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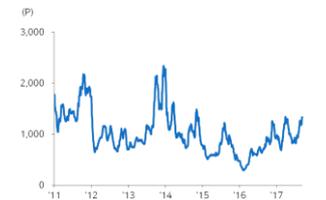
##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7E	18E	17E	18E	17E	18E
현대중공업	7,734.8	17.8	136,500	0.0	-18.8	-26.8	-1.4	49.1	111.1	0.7	0.7	1.3	0.6
현대로보틱스	7,084.7	19.1	435,000	1.9	-9.4	2.7	NA	4.8	5.4	0.9	0.8	19.4	15.8
현대일렉트릭	886.7	5.4	239,000	3.2	-21.3	-26.1	NA	11.7	7.9	1.1	1.0	9.5	13.1
현대건설기계	1,288.5	9.3	359,500	0.8	-7.1	1.6	NA	11.2	8.6	1.5	1.3	13.1	15.8
삼성중공업	3,880.5	18.7	9,950	0.4	-7.9	-26.0	7.6	50.5	107.6	0.6	0.6	1.2	0.6
대우조선해양	N/A	2.4	N/A	NA	NA	NA	NA	NA	NA	NA	NA	17.6	9.1
현대미포조선	1,842.0	13.4	92,100	-1.2	-11.4	-23.3	37.1	9.1	31.2	0.8	0.7	8.9	2.4
한진중공업	423.1	4.5	3,990	5.8	-7.0	-21.1	18.6	-12.4	9.0	0.5	0.4	-3.8	5.1
현대엘리베이터	1,280.9	28.8	52,000	2.0	1.2	-17.6	-9.4	9.7	9.2	1.4	1.3	15.9	14.6
두산발켓	3,664.1	24.1	36,550	1.8	-1.3	-1.9	2.0	16.0	14.7	1.0	1.0	6.6	6.7
현대로템	1,504.5	27.9	17,700	2.0	-3.3	-19.9	-2.5	33.5	22.7	1.1	1.0	3.2	4.6
하이록코리아	283.2	46.8	20,800	0.2	-7.6	-18.1	-1.4	10.9	9.6	0.9	0.8	8.5	9.0
성광벤드	265.4	14.1	9,280	-1.3	-2.6	-14.5	4.7	30.0	17.3	0.6	0.6	1.9	3.2
태광	242.7	16.9	9,160	0.0	-1.6	-2.6	10.5	34.3	18.9	0.6	0.5	1.6	2.9
두산중공업	1,831.1	10.2	17,200	1.8	-6.0	-28.9	-36.8	21.7	10.0	0.6	0.6	3.2	5.8
두산인프라코어	1,724.0	9.8	8,310	-0.7	-0.5	-5.2	-5.8	9.8	8.0	0.9	0.8	8.5	9.8
두산엔진	283.6	5.0	4,080	0.9	3.4	-11.5	24.2	21.2	19.8	0.5	0.5	2.5	2.6
한국항공우주산업	4,557.0	20.2	46,750	2.2	26.7	-25.6	-30.2	28.5	17.9	3.0	2.7	10.7	15.8
한화테크윈	1,996.2	21.1	37,950	1.2	-0.1	-17.8	-12.7	20.4	14.9	0.8	0.8	4.2	5.5
LG넥스원	1,669.8	19.8	75,900	1.1	4.0	5.3	-5.7	16.9	16.5	2.3	2.1	15.3	13.6
태웅	361.1	3.7	18,050	-2.4	-8.4	-33.9	-19.6	46.6	16.0	NA	NA	1.2	3.5
동성화인텍	131.9	3.4	4,890	-1.7	-17.4	-19.0	-15.0	NA	NA	NA	NA	NA	NA
한국가분	255.0	16.5	5,800	0.0	-2.5	-12.5	-4.1	19.5	26.2	0.8	0.8	4.1	3.0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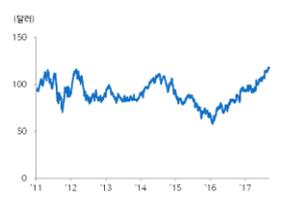
## 주요 지표 및 차트

Baltic Dry Index(BDI) : **+24** 1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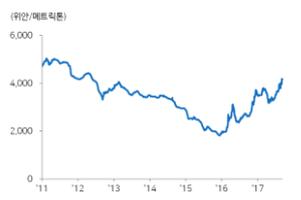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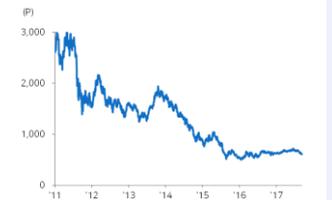
Caterpillar(CommonStock): **+0.85** 120.48



중국 내수 후판 가격 (CDSPPSPAV Index)



KRX 조선업 지수(KRX Shipbuilding Index)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Vale beefs up fleet renewal to 30 VLOC newbuildings

브라질 Vale는 30척의 VLOC 건조를 위해 7개의 해운사와 장기간 해상운송 계약(COA)을 체결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COA 계약은 20~25년으로 예상. 플라리스해운은 10척, ICBC FL은 6척, Cosco와 팬오션 각각 4척, H-Line, SK해운, 대한해운이 각각 2척을 발주할 계획임. Vale는 6개월 간격으로 12척의 VLOC를 변화하려 했지만, 현재 낮은 신조선가를 이용해 신조선을 발주함. 신조선은 각각 최소 7.5천만달러가 소요될 전망이며, 2019년 말부터 인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해운회사와 현대중공업, 중국 Yangzijiang, Bohai, Qingdao, Weihai 조선소가 협상 중으로 알려짐. 추가로 Vale는 IMO Tier III 부합하는 LNG-ready VLOC를 모색함. (TradeWinds)

### DSD adds two more MR tankers to newbuilding basket

노르웨이 DSD Shipping은 현대미포조선에 5만DWT급 MR Tanker 2척의 잔여 옵션을 행사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Tier III 기준으로 건조되며, 각 선박은 3.2천만달러로 알려짐. 기존 계약은 현대 Vinashin 조선소에서 4척의 MR Tanker를 건조해, 2019년에 1척, 2020년에 3척 납품하도록 됨. (TradeWinds)

### Statoil getting serious about race for Castberg

노르웨이 Statoil은 11월 1일 Johan Castberg FPSO에 Hull-LQ 패키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경쟁 조선소는 국내 조선3사와 싱가포르 Keppel, Sembcorp이며,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유력한 입찰자로 알려짐. 이번 패키지의 가격은 5~6억, 최종 투자결정은 17년 말에서 18년 초로 예상됨. (Upstream)

### Drewry sees brighter boxships outlook

Drewry Shipping Consultants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컨테이너선 운임은 16% 상승할 전망이다. 현재 컨테이너선 운임이 약간 떨어진 상태는 맞지만, 내년 중반에 주요 컨테이너선사의 Consolidation이 완료되면 운임 상승을 기대함. 향후 6개의 Alliance가 65%의 컨테이너선 시장을 통제할 전망이다. (TradeWinds)

### 해양시추사 '시드릴' 파산보호신청...최악의 면한 한국조선사

시추업체 Seadrill이 전일 Chapter 11을 신청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자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짐.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각각 2척의 Drillship에 대한 잔금이 약 8,200억원과 1조원이 존재함. 삼성중공업은 인도연장 협의를 진행 중이고, 대우조선해양은 18년 4월과 19년 1월 인도할 예정임. (조선비즈)

### Trafigura has its eyes on Pakistan FSRU

네덜란드 Trafigura는 파키스탄의 성장하는 LNG 시장에 대응해 FSRU에 주목함. 파키스탄은 2022년까지 30Mt LNG 수입을 목표로 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FSRU를 추가해야 하고, LNG 인프라에 투자가 필요함. 이에 대응해 Trafigura는 파키스탄의 두 번째 FSRU를 개발할 계획임. (Upstream)

### Seadrill in no hurry to sell rigs

시추업체 Seadrill은 Chapter 11으로 자산을 매각할 필요도 없고 현재 자산에 만족하고 있어, 향후 매각할 계획은 없다고 알려짐.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rig 시장에서 Consolidation으로 업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됨. 또 최근 북해와 아시아 지역에서 시추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언급함. (Upstream)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9월 1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자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 9월 1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조사사실 담당자는 2017년 9월 1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사: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